

ICID 2001 서울대회

어 대 수

한국관개배수위원회 사무국장



1. 서울대회의 유치와 준비

"The majority goes to Seoul, Korea....", 1996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제47차 카이로 집행위원회에서 Dr. S. Abdullah 회장이 제52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ICID 2001 서울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박수소리, 축하인사, 그리고 우리 대표단이 감사를 표하는 연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제52차 집행위원회의와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를 서울에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의 노력은 1993년 제15차 헤이그 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표단을 이끌고 총회에 참석하였던 조흥래 회장은 1998년 ICI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현지에서 유치신청 하였으나, 인도네시아가 먼저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인도네시아에 양보하기로 결정하면서, 2001년 아시아지역회의와

함께 제52차 집행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아시아지역회의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회의로 두 대륙이 합쳐 하나의 지역회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대표단은 두 대륙간의 관개배수 관행이 상당히 다른 점을 들어 아시아지역회의와 아프리카지역회의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994년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개최되었던 제45차 집행위원회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회의의 분리가 확정되었고, 1996년 제16차 카이로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Asian Regional Working Group)가 창립되어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47차 집행위원회의에서 2001년의 제52차 집행위원회의 유치를 신청한 한국과 미국이 표 대결까지 가는 경합을 벌여 서울대회가 확정·선포되었다.

1993년부터 ICID 2001 서울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KCID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외국인을 참석시키기 위해 1997년부

터 ICID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는 서울대회 홍보부로서를 제작·배포하였으며, 2000년 10월에는 금년 회의를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어느 ICID 회의보다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었던 "ICID 2001 서울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멀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42개 회원국과 8개 국제기구로부터 274명의 외국인 전문가가 참석하였던 서울대회를 준비하기에는 11개월의 시간이 결코 넉넉한 기간은 아니었다. 조직위원과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서울대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사진행을 자문해 주신 위원님들은 물론 학술, 재정, 수송, 전시, 홍보, 행사 팀 등 6개의 실무 워크팀이 각각 맡은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었다.

서울대회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특히, 대회 5일전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뉴욕 비행기 테러 사건으로 약 100여 명의 참석예정자가 참가를 철회하는 사태를 맞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서울대회 조직위원회는 ICID 본부 사무국과 각 국가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 43개국으로부터 온 540명의 관개배수 전문가, 교수, 정부대표들로부터 학술 및 행사 진행 면에서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첫 아시아지역회의가 병행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ICID 2001 서울대회는 그 동안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바탕으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KCID 단체 및 개인 회원 등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로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 나라 농업 기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함께 국가 이미지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기대하며, 지

난 8년 동안의 노력이 낳은 결실을 학술회의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2. 대회 개요

「우리 나라 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개배수 분야의 경험 및 기술을 세계 각 국에 전파」하고 「21세기 식량자급 및 농업개발사업의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던 "ICID 2001 서울대회"의 대회기간 및 주요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회명 :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제52차 집행위원회 및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
(52nd International Executive Council Meeting and 1st Asian Regional Conference of ICID)
- 대회 기간 : 2001. 9. 16(일)~21(금)
- 회의 장소 :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
- 주요 행사내용
 - ▶ 제 52차 ICID 집행위원회(IEC) 회의
 - ▶ 전략기획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회의
 - ▶ 환경분과위원회 등 27개 기술분과위원회
 - ▶ 제1차 아시아지역 회의 (ARC : Asian Regional Conference)
 - ▶ 워크숍 (Workshop) I, II
 - ▶ 특별워크숍 2개
 - ▶ 전시 (Exhibition) : 11개 업체 20개 부스
 - ▶ 친교행사 (Social Program) : 환영리셉션, 송별만찬 및 민속공연
 - ▶ 기술견학 (Technical Tour) : 새만금간척, 대호친환경, 충주TM/TC 지구
 - ▶ 동반자투어(Accompanying Persons' Tour)
 - ▶ 회의후 관광(Post Conference Tour) : 제주, 경주, 설악산 코스
- 주 최 : 한국관개배수위원회

- 주 관 :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 후 원 : 환경부,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공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대담회, 한국수자원학회
- 참가 인원 : 총 540명(외국인 274, 내국인 266)

3. 학술회의

ICID 2001 서울대회에서 논문발표를 통한 학술 활동을 크게 나누어 보면 아시아지역회의(Asian Regional Conference)와 워크숍으로 구분되며, 그 이외의 활동으로는 서울대회를 기념하여 발간한 출판물이 있다. 아시아지역회의는 농업(Agriculture), 물(Water), 환경(Environment)을 주제로 100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워크숍 I (Agricultural Based Development in Tidal Swamps and Estuaries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은 27편의 논문이, 그리고 워크숍 II(Wastewater Reuse Management)는 25편의 논문 등, 총 152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논문은 다시 부제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되었는데, 아시아지역회의와 워크숍 II는 각각 4개 세션으로 구분되어 모두 9개의 세션이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발표되었다.

발표 논문 현황 (단위:편)

구 분	계	아 시 아 지역회의	워크숍 I	워크숍 II
계	152	100	27	25
Oral	85	55	14	16
Poster	23	10	12	1
미발표	44	35	1	8

제1차 아시아 지역회의의 주제는 1997년 9월 9일 영국 옥스퍼드(Oxford)에서 개최된 제48차 집행위원회의의 아시아지역분과(Asian Regional

Working Group) 회의에서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로 정하여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였다. 1999년 9월 11일 스페인의 그라나다(Granada)에서 개최된 제50차 집행위원회의의 아시아지역분과 회의에서 주제인 "Agriculture, Water and Environment"와 4개의 부제가 확정되었으나 제출된 논문의 심사와 분류 과정에서 부제를 최종 수정하였다. KCID는 2000년 4월 Call for Papers를 발간하여 각 국가위원회와 관련 연구소 및 기관에 배포하고 초록을 모집한바, 24개국에서 162편이 접수되었으며 초록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7편이 탈락되었다. 합격된 155편에 대한 논문 수집결과 100편의 논문이 접수되었다. 제출된 논문의 초록은 별도의 요약집으로 발간하였으며, 전체 논문은 CD-ROM으로 제작하여 서울대회 기간 중에 전체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부제와 부제별 원고 접수 편수는 다음과 같다.

- Irrigation and drainage in the farmland : 45편
- Automation and real-time monitoring system : 16편
- Irrigation water quality, water policies and environment : 32편
- Flood damage control : 7편

ICID 환경분과위원회와 KCID가 공동주관하였던 워크숍 I (Agricultural Based Development in Tidal Swamps and Estuaries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의 주제는 1999년 9월 11일 스페인 그라나다(Granada)에서 개최된 제50차 집행위원회의의 아시아지역분과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나, 원고 접수 후에 내용에 따라 다소 수정하였다. KCID는 2000년 4월 Call for Paper를 발간하여 각 국가위원회와 관련 연구소

및 기관에 배포하고 워크숍 논문 초록을 모집한바, 12개국에서 52편이 접수되었으며 초록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모두 합격되어 집필통보를 하였으나, 실제로 제출된 논문은 27편이었다. 제출된 논문의 초록만 별도의 요약집으로 발간하고 전체 논문은 CD-ROM으로 제작하여 서울대회 기간 중에 전체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부제와 부제별 원고 접수 편수는 다음과 같다.

- Technical aspects : 14편
- Socio-economic aspects : 6편
- Environmental aspects : 7편

워크숍 II의 논문은 영국 윌링포드 수문연구소의 Dr. Ragab Ragab 가 주관하고 최종 원고 25편을 송부하여 이를 책(Proceedings)으로 발간하고 CD-ROM에 수록하였다. 부제와 부제별 논문의 분포는 Technology 7편, Environmental impacts 7편, Soil- Crop-Water management 7편, 그리고 Planning and institutional aspects 4편이었다. 부제 중 Health related issues와 Cost effectiveness에 해당하는 논문은 없었다.

위의 두 워크숍 외에 연구논문의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두 주제에 대하여 별도의 워크숍이 열려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국제물관리연구소(IWMI: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와 ICID 관개시스템개발관리분과위원회(Working Group 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Irrigation Systems)가 서울대회가 임박하여 추가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주관한 워크숍(Workshop on Irrigation Maintenance)과, ICID 배수분과위원회(Working Group on Drainage)가 주관한 배수 워크숍 (Internal Workshop on Drainage Needs)이 개최되었다.

4. ICID 서울대회 기념책자 발간

금년 서울대회를 기념하여 KCID에서 발간한 “아시아의 쌀농사(Rice Culture in Asia)”와 “한국 농업수리사(History of Irrigation in Korea)”는 국내 최초로 고유한 우리 나라의 쌀농사 문화와 관개배수 역사를 집대성하여 영문으로 발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두 권의 귀중한 책이 영문으로 발간됨에 따라 대회에 참석하였던 각국의 전문가를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우리 나라 농업의 발자취와 전통에 대한 시야를 크게 넓혀 주고,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아시아의 쌀농사(Rice Culture in Asia)”는 1998년 7월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 49차 집행위원회의의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ASRWG: Asian Regional Working Group) 회의에서 Rice-paddies에 관한 책자를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를 기념하여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가 발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KCID는 이를 수락하였다. 1999년 9월 11일 스페인의 그라나다(Granada)에서 개최된 제50차 집행위원회의의 ASRWG 회의에서 새로 발간되는 책에는 아시아 각국의 Country Report 및 Rice-paddies에 관한 한국의 경험 등을 수록하도록 논의되었다. 2000년 10월 22일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된 제51차 집행위원회의의 ASRWG 회의에서 이 책자의 발간에 대한 재확인 이 있었고 집필자 대표인 ICID 부회장 권순국 교수가 발간계획을 보고하였다.

“한국 농업수리사(History of Irrigation in Korea)”의 발간은 ICID에서 History of Irrigation in Eastern Asia를 발간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의 원고를 요청한바 있어, KCID는 이를 한글

로 작성하고 미국 어번대학(Auburn University)의 유경학 교수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완성하였으며, 이 책자 발간의 주관 국가위원회인 일본의 ICID 국가위원회에 송부하였다. 한편, 원고가 완성됨에 따라 2001년 9월의 ICID 회의 시 각국의 참가자에게 한국의 관개역사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의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5. ICID 서울대회를 마치고

“농업, 물, 환경”을 주제로 2001년 9월 16일부터 5일 동안 모두 152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던 제 1차 아시아지역회의와 워크숍은 아시아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관개배수, 관개시스템의 자동화, 수질 및 수자원 정책, 환경, 홍수조절, 간척 등 농지조성 분야에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 쌀농사의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 대회를 마무리하는 폐회식 때 발표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은 ICID 2001 서울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집약하고 있다. 서울선언문은 인구와 식량부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수자원 개발의 비전을 담고 있으며, 쌀농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선언문에는 농업개발이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의 경관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와 전통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ICID 서울대회가 우리 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실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기술력의 진흥으로 내실을 다지며 선진기술과

의 더욱 폭 넓은 교류를 통해 우리의 농업기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또는 우리 나라 단독으로도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며, ICID 저널과 같은 국제학술지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농업분야에서 지금까지 개최한 국제회의로는 가장 대규모의 대회였고, 앞으로도 다시 유치하기 어려운 대회였던 만큼 위에서 열거한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아 있다. 외국인 참가자들로부터 역대 가장 짜임새 있게 조직된 대회였다는 찬사를 여러 번 들었지만, 준비과정에서 목표하였던 북한의 관개배수기술자 초청이 무산되었던 점이나, 대회 5일전에 발생하였던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참가자 수가 예상보다 100명 가까이 줄어들었고,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등록과 숙박 및 수송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ICID 서울대회는 우리 나라에서 첫 아시아지역회의가 병행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회로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쌀 농사와 관련하여 관개와 배수가 가지는 역사·경제·사회·문화적인 의미와 환경적인 특성을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 나라를 위시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논관개 및 배수를 위주로 한 각종 관련 기술을 심층 검토·발전시키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총 152 편의 논문발표와 토론 및 기술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쌀농사의 다원적 기능을 전 세계에 알려 농업분야에서의 국가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수자원을 개발하는 우리 나라의 간척사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구 및 해안 저지대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간척분야의 기술발전을 목표로 KCID가 제안한 “갯조지역 지속가능개발 분과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idal Area)”가 ICID 내에 기술분과위원회로 설치되었으며, 분과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으로 KCID가 주도하여 200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워크숍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서울대회를 기념하여 발간한 “아시아의 쌀농사(Rice Culture in Asia)”와 “한국 농업수리사(History of Irrigation in Korea)”는 대회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로부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은 훌륭한 도서이다. 영문으로 발간한 두 권의 전문서적은 ICID 회장 Bart Schultz 박사가 지적하고 참가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한 “아시아의 쌀농사 관개농업 지역이 인구, 식량생산, 물사용, 환경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

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넷째, 대회기간 중 3회에 나누어 제공되었던 새만금간척사업, 대호친환경사업 및 충주물관리자동화사업 지구 등 기술시찰과 4회의 동반자 프로그램 및 3개 코스의 회의 후 투어를 통해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 자연, 쌀농사, 관개배수 시스템 등을 잘 인식시킨 기회가 되었다.

다섯째, “우리 모두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물비전을 실현하고 21세기 물부족을 해결할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ICID가 제정한 물절약상(Watsave Award) 중, 충남대학교 김태철 교수는 기술상을 받아 우리나라 관개배수 기술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이번 ICID 서울대회를 준비하고 대회운영을 맡았던 조직위원회 실무자들에게는 국제협력 교류의 귀중한 경험을 가져다주었으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울대회 보다 더 큰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